

體制統合에 關한 宗教의 役割

—南北韓 關係를 中心으로—

尹 以 欽

- I. 序論 : 問題의 性格
- II. 民族主義, 政治的 理念과 宗教
- III. 南韓과 北韓의 宗教
- IV. 結論 : 體制統合에 對한 宗教에의 기대

I. 序論 : 問題의 性格

南北韓의 體制統合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단일민족인 한민족이 인위적으로 分斷되어 있는 것을 재통합하는 일에 關係된다. 따라서 우리의 주제는 宗教가 單一民族의 意識, 人爲的 分斷에서 오는 歷史적 피해의 意識, 그리고 재통합을 바라는 民族的 熱望에 각각 어떤 影響을 줄 수 있는가 하는 問題를 그 안에 담고 있다. 우리의 논의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進行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의 體制통합은 우리 민족이 열망하는 이른바 民族統一을 이루는데 필요한 政治적 제도적 장치의 통합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體制통합은 민족통일의 수단이다. 그런데, 실제로 수단과 목적에 대한 分명한 認識이 없이 통일문제가 논의되기 때문에 여러가지 혼선이 나타나곤 한다.

하나의 社會체제는 特정한 政治적 이념을 그 뒤에 깔고 있다. 政治的 理念이나 宗教的 信念은 모두 당위적인 사상들이어서 역사를 特정한 方向으로 유도하려는 未來指向的인 성격을 갖는다. 미래지향적 태도에 따르면 민족통일은 내일의 이상사회를 建設하는데 絶대로 필요하다. 다시 말해

서 정치나 종교의 당위론적 사상은 민족통일을 내일의 이상사회를 위한 수단으로 여긴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分斷狀況에 처한 국민들은 내일의 이상사회를 위하여 민족의 통일을 열망하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분단된 민족을 다시 통합하여 그들이 단일민족으로 태어났다는 숙명을 재확인하려고 열망하는 것이다. 統一은 미래의 희망 때문이 아니라 過去의 宿命 때문에 추구되는 것이다. 이는 자연집단으로서의 民族共同運命體 意識에 의하여 통일이 일차적으로 추구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이러한 통일의 일차적 동기가 사회적 행위로 나타날 때 특정한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과 연합하게 되면서 목적과 수단의 관계에 혼선이 오게 된다. 특히 이 혼선은 南韓과 北韓의 서로 크게 다른 사회체제에서 오는 통일의 해석에 대한 이해의 차이에서 드러난다. 남북한이 서로 다른 정치적 이념과 체제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로 통일을 추구하는 것은 민족 공동체 의식에서 비롯된다. 따라서 체제통합의 과제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1) 남북한의 사회체제, (2) 민족공동체 의식, (3) 종교적 신념의 삼각 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러한 삼각관계를 논의하기 위하여 제 2장에서 종교가 한국의 민족주의와 세속적 정치이념과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문제점등을 살펴보고, 제 3장과 제 4장에서 각각 남한과 북한에서의 종교들이 갖는 문제들을 헤아려 보고, 끝으로 종교가 한국의 체제통합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하겠다.

II. 民族主義, 政治的 理念과 宗教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남북한의 체제통합에 대한 종교의 역할은 기본적으로 韓國의 民族主義, 남북한의 체제를 근거시키는 政治理念, 그리고 宗教의 삼각관계에서 파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현대사회에서 중

교사상이 갖는 기본적인 문제부터 살펴보기로 하자.

종교는 모든 인간이 그 속에서 삶의 안심입명을 얻을 수 있는 精神的 歸依處를 제공하여 주며, 인간역사가 지향하는 내일의 이상사회인 黃金時代를 약속한다. 이처럼 종교사상은 기본적으로 인간과 역사의 普遍的 理想을 추구하는 理想的 性向을 갖는다. 그러나 보편주의적 사상운동은 언제나 구체적인 역사적 상황과 그 시대적 요인들을 수용하면서 표현되기 때문에 그 時代的 地域的 特殊性을 지니게 된다. 특히 현대사회에서 그 특수성은 소수민족의 民族主義로 나타난다. 종교가 고통받는 소수민족의 해방을 위하여 그 보편주의적 종교이상을 역사에 펼 때, 민족주의의 옷을 입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의 소수민족 분쟁지역에서 예외없이 찾아볼 수 있다. 19세기 이후의 한국종교들도 한국의 민족주의의 옷을 입게 된 것 역시 예외일 수 없다.

이처럼 종교사상은 본질적으로 그 안에 보편주의(universalism)와 특수주의(particularism)라는 이율배반적인 두 요인을 동시에 담고 있으며, 이를 우리는 종교사상의 이중운동(the dual movement of religious thought)라고 부르기도 한다. 종교는 본질적으로 이 이중운동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언제나 종교행위에는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병행현상(parallelism)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어느 하나가 강조된다고 하여 다른 하나가 포기되는 법이 종교행위에는 없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한다.

종교의 보편주의운동은 세속적 가치관과 사상, 그리고 세속적 제도를 넘어선 절대가치를 추구한다. 종교의 보편주의는 인간의 내면적 삶과 사회제도의 운영에 대한 자기반성의 절대적 기준을 제공한다. 이 기준에 의하여 종교는 세속적 가치에 정체되어 있거나 그속에서 타락하여 가는 개인과 사회의 영원히 새로운 채신을 유도하는 혁명적 기능과 인간 양심의 근거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이러한 종교의 혁명적 기능에 의하여 어떠한 세속적 제도나, 정치적 이념도, 그리고 어떤 세속적 학설이나 사상도 절대적인 기준 위에서 상대화

되어 버리게 된다. 종교적 보편주의는 그 어떤 세속적 [체제나 정치적] 이념과도 엄격한 의미에서 동등한 자격의 반력자가 될 수 없고, 다만 일시적 편의에 따라 손을 잡은 편의상 동반자일 뿐이다.

종교는 일시적 편의에 따라 정치체제와 세속적 이념들과 손을 잡는다. 그러나 그 선택은 기본적으로 종교사상과의 친화성에 따라 그 우선순위가 매겨진다. 비록 종교가 정치적 억압에 따라 세속적 요인을 수용하도록 강요당하는 상황에 있는 경우에도, 그 상황이 이완되는 순간 종교자체의 보편주의적 이상에 입각해서 세속사회에 대한 자체의 태도를 즉각적으로 재정비하게 된다. 일제하에서 한국의 종교들이 취한 태도들과, 동구라파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변화와 종교의 태도를 상기해 보면 될 것이다. 종교와 사회체제가 보다 친근한 관계를 유지하는 서방 자유진영에서 역시 종교는 결코 세속질서에 만족하지는 못하고, 다만 대결의 양상을 넘었을 뿐 내면적 긴장이 언제나 존재한다. 그 긴장이 세속질서의 부패를 방지하는 종교의 보편주의적 운동의 기능이다.

종교가 민족주의의 옷을 입을 때, 정치적 성격을 보다 크게 지닐 가능성이 있다. 특히 소수민족의 해방과 관계된 민족주의는 그 자체가 정치적 운동이기 때문이다. 남북한의 체제통합에 종교가 관여할 때는 본질적으로 민족주의에 근거하지 않을 수 없다. 앞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민족이 통일되어야 하는 이유는 어느 특정 종교의 보편주의이상 때문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하나의 민족이라는 공동운명체인식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이다.

분단체제의 통합은, 그러므로 民族主義에 의하여 요청되고, 또 남북한의 전체 국민이 통일을 염원하게 되는 것이다. 한마디로 民族主義가 統一의 根本動機이며 原動力이다. 민족주의가 남북으로 갈라진 우리 민족을 하나로 묶어주는 연대감이며 접착제인 것이다. 바로 이 동기이며 원동력인 민족주의를 체제이념들과 종교가 각각 다른 입장에서 수용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韓國的 民族主義의 의미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리가 『韓國民族』이라고 할 때, 우리는 이 개념에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첫째, 한국민족은 단일민족이라는 血緣共同體이다. 둘째, 우리는 言語共同體이다. 셋째, 오랜 역사를 지닌 歷史 및 文化共同體이다. 넷째, 오랜 역사를 통하여 한반도라는 제한된 지역에서 살아온 地域共同體이다. 다섯째, 특히 19 세기에 밀려드는 제국주의의 횡포에 고통을 받아 온 우리 민족은 국제사회에서의 運命共同體라는 강한 의식을 갖게 되었다. 우리는 이 다섯 개념을 모두 한국민족이라는 말 속에 포함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만약 우리가 쓰고 있는 민족이라는 개념에 위의 5 가지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면, 이는 분명히 서양에서 전해온 “nationalism”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의미 맥락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해진다. 왜냐하면, 서양의 근대국가에는 우리와 같이 5 가지의 의미를 모두 보유한 국민의 단위를 가진 나라는 없기 때문이다. 분명히 “민족주의”라는 말은 서양의 내쇼날리즘의 번역어인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서양말에는 우리가 쓰고 있는 의미의 “민족주의”에 해당하는 말이 없다. 따라서 우리는 비록 단어는 서양에서 빌어왔지만 그 의미맥락과 의미내용은 전연 독자적인 것으로 쓰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

한국의 민족주의는 역사적으로 수동적인 맥락에서 인식되었고 또 표현되었다. 한마디로 한국민족은 혈연, 언어, 문화, 지역공동체의 운명을 타고난 自然集團인데 국제정치상황에서는 인위적으로 분리되어서는 안될 共同運命體라는 인식을 담고 있다. 이러한 단일자연집단이 국제사회에서 외부로부터 오는 압력에 의하여 존재의 위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겨내지 않으면 안된다는 生存動機의 집단의식이 표현된 것이다. 그러므로 한반도 한국민족주의가 민족우월주의로 국제사회에 표현되어 본 적도 없으며, 제국주의나 쇼비니즘으로 연결되어 본 적도 없다. 하나의 단일자연집단의 역사정황속에서의 자기 운명에 대한 주체적 각성이 우리에게서 한국민족주의라는 용어를 빌어 표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오늘, 南北의 분

斷狀況에서도 다르지 않다.

한마디로 한국의 민족주의는 특정한 정치적 이념이나 사상적 내용이 아니라 韓民族이라는 自然集團이 갖는 生存權의 自己覺醒이다. 그것은 사상의 내용이 아니라 사상이나 이념이전의 생존을 위한 충동이며 요청이다. 그것은 유기체적 자연집단의 存在論的 衝動이다.

이러한 衝動과 힘이 역사에 표현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표현의 형식이 필요한 데, 그 형식이 바로 정치적 이념이나 종교적 신념으로 나타나게 된다. 남북의 분단상황에서 민족주의라는 충동과 힘이 정치적으로 표현되는 형식에는 공산사회주의와 자유민주주의라는 두 가지의 간단한 정치 이념형태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충동과 힘이 종교적 신념으로 나타날 때는 매우 복잡한 모습을 지닌다. 따라서, 우리 사회에서 “종교”라는 일반개념을 사용하여 남북의 체제통합을 논의하여 온 지금까지의 태도는 복합적인 문제에 대한 이해에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한다. 여기에 한국의 종교들이 “한국민족주의”를 수용하는 태도의 다양성과 연결하여서 이 문제를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국에는 기본적으로 네가지 유형의 종교들이 공존하고 있다. 첫째는 유교와 불교를 포함한 東洋古典宗教들이며, 둘째는 서양에서 온 基督教이며, 셋째는 한국자생 民族宗教들이며, 넷째는 巫俗과 같은 固有宗教들이다.

오랜 역사를 통하여 유교와 불교는 한국의 고전문화를 형성하는 데 주역을 맡아 왔기 때문에 현대사회에서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찾는 데 능동적으로 동참한다. 다만 이들은 민족문화의 주체성을 서력동점이후에 서양의 기술문화와 기독교, 그리고 정치체제가 들어오기 전의 한국전통문화의 맥락에서 찾으며, 그런 방향에서 민족주의를 받아들인다.

한 유기체적 존재가 그의 正體感을 갖는 데는 자기존재의 물리적 상태를 점진하는 길과, 자기의 내면적 가치관을 확인하는 두가지 길이 있다. 개인에게 있어서 그것은 건강진단을 하는 일과 자아의 발전이다. 민족에

게 있어서는 그것이 단일민족이라는 공동운명체의 확인과 민족의 文化傳統의 再確認으로 나타난다. 동양고전종교들은 바로 민족문화의 전통을 통하여 민족주의를 수용하는 것이다. 다만, 이 경우의 민족의 문화공동체 인식을 크게 강조하면서 상대적으로 혈연, 지연, 언어적 공동체 성격은 약하게 인식된다. 따라서 불교와 유교의 사상으로 민족주의를 보호하는 데는 상당한 논리적 제약을 가지게 된다.

이에 더하여, 동양고전종교들은 현대사회체제에 대한 사상적 자체적응의 과정을 충분하게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종교적 자기신념체제에 민족주의와 현대사상을 동시에 수용하여 사회체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준비가 충분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

다음으로, 개신교와 카톨릭을 포함한 기독교는 한국의 현대정치사에서 강력한 사회세력으로 급속히 성장하였지만, 문화사의 견지에서는 아직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아직 기독교가 한국 전통문화의 의곽에 자리잡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아직 민족의 전통문화내용에 입각하여 민족의 통일을 논의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기독교 사상은 한국민족의 자연집단으로서의 단일체를 수용하는 데도 매우 까다로운 점이 있다. 따라서 기독교는 민족의 문화와 자연집단으로서의 성격을 배제하고 민족을 순수한 공동운명체로 받아들여지게 된다. 그것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국제정치의 세팅에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인식은 정치적 성격을 다른 어느 유형보다 더 강하게 하여 준다.

기독교가 갖는 정치적 민감성에도 불구하고 남북의 분단상황을 극복하는 일에는 구조적인 취약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앞의 논의에서 감지하게 된다. 그것은 기독교가, 유불의 동양 고전종교와 같이 강한 보편주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순수한 민족주의적 사상동기(motif)를 갖지 못하는 점에서는 동일하면서도, 문화전통에 아직 참여하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남북의 전체 국민에게 文化的共同유대감을 가질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여 주지 못한다. 이에 반하여 유교가 아직도 인간관계의 위계질서

에 대한 존중과 기본예절의 내면적 규범의 역할을 북한에서도 하고 있으며, 불교사찰이 북한국민들의 정서적 휴식처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실에 비교하여 볼 때, 기독교의 문화적 역할의 제약성이 쉽게 이해된다.

기독교의 강점은 고도의 정치적 적응력과 조직적 선교정책의 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기독교가 선교를 통하여 체제통합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 사실상 한국의 기독교들은 이미 이러한 인식에서 북한 선교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는 민족의 통일이 과거의 운명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미래지향적 동기로 해석되는 가능성이 매우 짙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성향의 통일의지는 자칫하면 통일에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

세째로 한국자생종교들은 1860년 최제우가 東學敎를 창교한 이후에 우후죽순과도 같이 태어났는데, 이들은 거의 모두 민족의 영광을 되찾는 민족적 열망을 종교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리하여 그들 스스로가 民族宗敎라고 부르고 있다. 민족종교들은 앞에서 살펴본 5가지의 민족주의 내용을 구체적인 교리체계로 담고 있다. 그리고, 동학에서 출발한 천도교는 3.1운동을 주도하고, 대종교는 만주에서 독립군 지원세력이었다는 사실에서 민족종교들의 민족주의에 입각한 정치적 활동의 모습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민족해방의 정치적 운동에 깊이 관여하였던, 이 두 민족종교들은 해방이후 그 영향력이 크게 상실하였고, 상대적으로 같은 민족주의의 맥락에서 보다 종교적인 활동을 하던 종교들은 커다란 성장을 보여 주고 있다.

위에서 우리는 민족종교의 자체 한계를 엿볼 수 있다. 민족종교의 발생 동기는 매우 정치적인데 비하여 그들이 아직 사상적 정비의 과정을 충분히 갖지 못한 상태에서 계속되는 사회적 격변을 거치게 되었다. 따라서 민족주의적 동기를 이념적으로 충분히 개발하지도 못하였고 또한 그들의 이념을 현대사회체제에 적용할 수 있는 대안을 충분히 마련하지도 못하였다. 그러나 민족의 통일을 위한 근본적 “충동이며 힘”인 민족주의와 민족주체 의식의 사회적 실체라는 점에서 민족종교들을 우리는 주시해야 할 것이다.

내제로, 무속으로 대표되는 한국 고유신앙은 종교적 조직을 지닌 이른바 제도화된 종교(organized religion)가 아니라 단순한 신념체계전통(a tradition of belief-system)으로 전해져 내려온다. 조직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남북의 체제통합에 이 전통을 대표하여 운동을 전개할 주체는 없지만, 우리 민족의 정신생활에 가장 오래 그리고 가장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남북한 국민에게 정서적 공동유대감을 주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라는 사실에 주목할만 하다.

앞에서 우리는 민족의 통일을 위한 결합력이 민족주의라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민족주의는 민족의 공동유대감을 확인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체제통합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에 작동이 될 수 있다. 공동유대감은 민족 문화의 전통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문화전통 밖에서 공동의 유대감을 찾아 강조하려는 것은 그 어떤 경우에도 부자연스러운 인위적 이데올로기의 횡포에 불과하다. 여기서 우리는 民族統一의 기술적 과정으로서의 體制統合을 爲한 第一原則은 民族의 文化傳統 위에 서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다음으로 우리는 앞에서 5유형에 속하는 종교들이 모두 체제통합을 위하여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종교의 일반적 특성에 따라 모든 제도화된 종교들은 자기가 역사에 최종 해답을 약속한다는 확신을 갖기 때문에 체제의 통합 역시 자기 종교가 가장 효과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객관적으로 볼 때, 어떤 종교도 가장 효과적인 공헌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가질 수 없다. 다만 모든 종교가, 무속까지를 포함하여, 각각 독특한 공헌을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體制統合을 위한 第二의 原則은 多元主義(pluralism)에 서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하게 된다. 이 多元主義原則은 체제통합에 참여하는 종교들의 태도에서 지켜야 할 원칙일 뿐만 아니라, 체제통합이 앞으로 지녀야 할 목표이며 내용이다. 체제통합의 목표와 이념으로서의 다원주의는 제국주의적이고 전체주의적인 독단론의 반대개념이다. 이는 모든 가치관과 세계관의

존재를 인정하면서도 어느 하나의 교조적 권위에 의하여 역사와 인간의 삶의 내용이 구체되는 것을 피하고 모든 가치관들의 상호관계의 조화스러운 질서를 추구한다.

체제통합은 의도적인 작업이며, 따라서 그것은 뚜렷한 목표가 있어야 한다. 이 의도적인 작업을 위하여는 전통문화에 입각한 상호 유대감의 개발과 다원주의원칙의 준수라는 두가지 원칙을 지켜야 한다. 이 두가지 원칙에 근거하여 체제통합에 따르는 다양한 의견들을 수립하고 체제통합에 걸림돌이 되는 여러가지 의견과 문제들을 정리하고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향에서 남한과 북한의 종교들에 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하자.

Ⅲ. 南韓과 北韓의 宗教

체제통합에 대한 종교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하여는 먼저 南韓의 宗教의 狀況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 왜냐하면 조금 있다가 살펴 보겠지만, 북한의 종교는 아직 매우 미약한 상태여서 남북한의 통일에 능동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처지에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韓의 종교들의 活性的 參與가 북한의 종교들에게까지 활력을 주게 될 것이다. 南韓의 宗教文化의 특성은 한마디로 多宗教狀況이라 말할 수 있다. 대체로 통계에 따르면 改新敎나 카톨릭을 포함한 基督敎가 전체 인구의 20~25%를 차지하고, 佛敎가 거의 이와 동등한 비율을 점하고 있으며, 유교와 기타 종교들이 10%를 차지하여 전체적으로는 50%정도의 인구가 宗教人으로 나타나곤 한다. 지난 85년의 인구센서스를 포함해서 거의 모든 통계조사가 같은 결론에 도달하곤 한다.

그런데, 예를 들어, 儒敎人口는 거의 모든 조사에서 2%以內에 도달하는데, 유교인의 정의에 따라서는 매우 의심스러운 수치가 아닐 수 없다. 1984年 겨울 본인과 한국갤럽조사연구소의 공동조사에 따르면, 조사응답

자의 91.7%가 儒敎의 信行에 따라 살고 있는 實踐의 儒敎人들이었다. (宗敎人口調査의 方法論 開發과 韓國人의 宗敎性向, 줄지, 『韓國宗敎研究, 卷2』, 1988년, p.73 참조) 모든 통계조사가 기독교는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만 유교와 같은 동양종교는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는 점을 알 수 있게 된다. 이는 다시 말해서 外形的 宗敎人口의 量이 文化的 영향력의 정도와 정비례하지 않는다는 점을 나타내 주기도 한다. 앞에서 우리는 傳統文化에 대한 東洋古典宗敎와 基督敎가 크게 다른 영향력을 갖고 있다는 점을 보았는데, 종교의 문화에 대한 영향력은 전통문화에 대한 기여도와 정비례한다고 말할 수 있다.

앞장에서 언급했던 것과 같이 5 유형의 종교들이 우리사회에 공존하고 있다. 이처럼 종교전통에 따라 서로 분리될 뿐만 아니라 한 宗敎內에서도 정치적 태도에 따라서 保守宗敎세력과 急進세력으로 갈라지고 있다.

보수종교집단은 정치에서부터 초월하려고 노력하면서도 정치변화의 영향을 받게 될 뿐만 아니라, 선교차원에서는 매우 적극적인 정치활동을 벌이고 있다. 급진세력은 지금까지 거대한 보수진영으로부터 외면당하여 왔기 때문에 급진세력의 정치사회에 대한 영향력보다 오히려 자기 종교안에서의 정치적 영향력이 크게 약하다. 이처럼 종교들 자체 내에서 대사회적인 태도의 통일성을 갖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

이처럼 다양한 종교들이 공존하는 남한사회의 외적조건도 多宗敎상황으로 나타나고 한 종교의 내적상황 역시 多樣性을 띠고 있다.

다양한 남한의 종교들은 매우 활발한 北韓宣敎운동을 벌이고 있다. 주로 기독교가 주도하고 있는 統一論議와 北韓宣敎로 모든 종교들과 한 종교안에서도 북한선교에 참여가능한 모든 집단이 동원되고 있다. 이 경우 統一과 宣敎의 관계가 매우 불분명한 상태에 이르게 된다. 통일을 위한 선교와 선교를 위한 통일의 구별이 불분명하기때문에 이는 多宗敎狀況에서 불매 사회적 혼선을 가져오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남한에서 가장 활발하게 統一論議를 주도하여 온 한국교회

연합회 KNCC는 다른 보수진영의 교회보다는 他宗教에 개방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統一論議에 있어서 北韓의 기독교인들과 접촉하는데 열성적이면서도 한국의 이웃 他宗教와 연합하여 논의하는 일에는 소홀하다.

이처럼 체제통합에 필요한 북한선교의 문제는 KNCC에서 마저도 자기 종교 중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앞으로 南北이 통일된 후에도 오늘의 남한에서와 같이 많은 종교들이 독자적인 自己膨脹주의에 머물게 될 것이라는 점을 예측하게 해준다.

오늘날 한국의 종교들은 무절제한 自己膨脹主義에 빠져있다. 이러한 태도는 심심치 않게 종교간의 마찰의 증상을 보여서 전체사회에 위협부담을 주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도 80년대에 들어오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종교들이 점점 多宗教狀況에서의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움직임이 활발해가고 또 전통문화의 재발견을 통하여 民族文化主體意識을 갖게 되었다. 禪과 단전호흡, 전통茶道, 탈춤과 전통음악등이 80년대에 널리 보급되는 현상이 이를 말해주고 있다.

민족문화전통성의 재발견과 다원주의 원칙이 서서히 한국의 종교계에서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 우리의 과제는 이 두가지 원칙을 각 종교가 그들의 선교과정에서 어떻게 수용하는가 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民族文化傳統성과 多元主義라는 두 가지 원칙을 지키지 않을 때, 각 종교들은 그들이 대사회적인 행동에 있어서 道德的 權成를 상실하게 된다. 한국과 같이 아직도 열강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민족이 自己正體感을 民族文化傳統에서 재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지 이를 거부하는 종교는 그의 보편적 이상을 문화전통에 뿌리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런데 전통문화에 대한 의미를 앞장에서 보았듯이 종교전통마다 다르게 해석한다. 종교들보다는 오히려 현재 韓國知性이 훨씬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韓國文化傳統을 이해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특정한 종교나 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전인수격으로 民族文化傳統을 해석할 때 그 自己中心的 자의성 때문에 도덕적 권위를 사회에서 상실하게 된다. 다

원주의 원칙을 무시할 때 오는 독선과 독단 역시 사회에서 도덕적 권위를 상실하게 하여 준다.

이처럼 南韓에서 宗教와 정치적 이념은 우리사회의 높은 知性的 水準에 의하여 비판받고 있다. 한국사회에서는 정부를 비롯하여 종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그만큼 개방된 사회이다.

그러나 北韓에서는 사정이 매우 다르다. 우선 北韓의 宗教는 지금 막 받아하는 매우 연약한 상태에 있다.

6·25 이후 북한정부는 과감한 종교박해정책을 펼쳤다(고태우, 『北韓의 宗教政策』(민족문화사)) 그리하여 사실상 종교가 없는 사회를 만들었다. 6·25 이후 80년대초까지 종교는 소수의 양심속에서만 남아있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外交政策的 需要에 따라 基督教연맹, 불교연맹, 그리고 天道敎의 청우당등을 공식조직으로 명칭만 허용하였었다. 물론 海外에서의 국제종교집회에 대표들을 파견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우리가 진정한 상식에 의하여 종교라고 할 때는 정기적인 집회를 聖所에서 公式의 으로 집행하는 것을 말한다. 적어도 한 국가 사회에 종교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문제일 때는 더욱 더 그러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아는 한 北韓에는 그러한 종교가 존재하지 않았다. 다만 1988년에 평양에 개신교 교회와 카톨릭 교회가 각각 하나씩 건립되었고 이 시범적 교회에서 극히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예배를 본다. 우리는 아직도 북한의 종교인들이 쓴 신앙고백이나 생활수기와 같은 一次資料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우리가 접할 수 있는 자료는 모두 첫째, 허가된 지역에 안내 받아가며 가서 보온 여행기에 실린 자료와 둘째, 북한 정부당국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서 발표된 기독교 대표들의 발표자료들이다. 이들 모두 북한의 신앙 생활의 一次자료가 될 수 없음이 분명하다.

작년부터 佛敎사찰에서 불교의 종교적 의례를 하게 되었다. 이처럼 북한은 분명히 금년 여름 대규모 국제회의에 참석하는 세계선님들에게 종교가 없는 사회라는 악명을 벗기 위하여 시범교회를 세우고 선교행사를

하게 되었다. 이는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북한에는 극히 소수의 종교인들이 있었으며, 이들이 가정에서 모여 이른바 「가정교회」의 예배를 보는 것이 허용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예배는 일종의 準秘密集會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다. 이러한 준비밀집회의 단계를 1989년을 계기로 막 벗어나려고 하는 단계에 있다.

이처럼 북한은 철저하게 사회주의 이념의 실천수단으로 종교를 인식하고 있으며, 이것이 북한 정부수립 이후 오늘까지 변하지 않는 일관된 종교정책이다. 김일성의 主體思想 역시 民族主義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북한의 主體思想은 문화전통성에 입각한 민족의 자기각성을 유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산·사회주의 이념을 건설하는 團體集團으로서의 民族을 인식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상의 총체적 명칭이 김일성唯一思想이다. 전통문화는 필요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唯一思想에 도움이 되는 것만 수용한다. 이처럼 김일성은 한국인의 민족의식이라는 生存動機를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정치이념의 수단으로 만들었다. 실제로 북한은 전체국민에게 매우 높은 수준의 도덕적 기준을 지키도록 강요하고 있다. 소수 정예분자를 제외하고는 감당하기 어려운 이들 요구를 모든 국민이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는 종교가 대중을 동원하는 방법을 그대로 쓰고 있다. 「아버이 수령」에 대한 경외와 교조주의적 지도, 다가올 천년왕국을 위한 열기와 같은 종교의 고전적 모습을 그대로 옮겨담고 있다. 한마디로 북한의 사회 자체가 類似宗教집단이다. 民族의 文化傳統이 왜곡되거나 거부되고, 강력한 교조주의적 획일사회인 북한사회와 체제통합을 이루기 위하여 南韓의 宗教들은 과연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일까?

IV. 結論 : 체제통합에 대한 宗教에의 기대

남북한의 체제통합을 위하여서는 무엇보다 양쪽체제의 경직성을 이완시키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일은 종교의 普遍主義的 운동만이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宗教만이 政治的 理念의 경직성을 이완시키는 이른바 脫理念化(de-ideologization)를 할 수 있다. 왜냐하면 종교의 보편주의적 이상이야말로 人的良心의 대표적인 것이어서, 정치이념의 허구를 벗기는 양심의 소리가 될 수 있으며, 그것을 변혁시키는 힘을 갖기 때문이다.

그러나 종교들이 사회에서 인간양심의 보루의 역할을 다하기 위하여서는 民族文化傳統을 지키는 일과 多元主義元則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 이 두가지 원칙을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이 선교를 위한 통일과 통일을 위한 선교의 차이를 구별하게 하는 기준이 된다. 만약 선교를 위한 통일논의를 전개하는 경우라면 이는 자기팽창주의를 선교를 통하여 부절제하게 전개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 이런 경우는 多宗教 상황이 가져다 주는 文化的 混沌을 통일이후에까지 연장하는 결과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통일의 과정에서도 개별종교들의 개별선교는 통일논의의 다변화를 유도하는데 기여하기도 하지만 체제통합이라는 구체적인 당면과제를 위하여는 커다란 혼선을 유발할 것이다.

그러므로 통일이 필요한 一次的 理由가 우리 民族이 單一自然集團으로 태어난 숙명적 과거에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그에 따라 통일을 위하여 각 종교가 해야 할 역할을 그 특성(2장에서 언급한)에 맞게 찾아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하여는 무엇보다 먼저 北韓의 선교를 자기 종교단체만 독자적으로 전개할 것이 아니라 他宗教와의 대화를 통하여 조화 있는 활동을 전개하여야 한다. 다시 말해서 모든 종교가 우리 民族社會를 형성하는 한 성원이라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이른바 多元主義元則을 지킬 줄 알아야 한다.

다원주의 원칙을 지킨다는 것은 곧 종교가 현대지성과 지적인 교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지성적 노력을 통하여서만 비로소 종교가 보다 더 큰 도덕적 양심의 권위를 지킬 수 있게 된다. 그러한 도덕적 양심에 입각해서 유일사상체제로 경직된 북한 사회를 이완시켜서 개방사

회로 유도하는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종교적 양심의 소리가 오래지 않아 북한에 심어진 종교적 양심의 메아리로 증폭되어 정치적 이념의 경직성을 극복하는 데 결정적인 공헌을 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지금은 그 힘이 연약하지만 그 연약한 힘안에 숨어있는 종교적 보편주의의 이상은 언제나 살아남아 있어서 언젠가는 정치적 이데올로기의 허구를 고발하는 예언자적 양심의 소리로 사회에 표현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이 땅의 종교들이 民族愛에 입각하여 현대지성의 요청인 多元主義 원칙을 사회에 옮길때, 분단된 민족의 비극의 상처를 치료하는 데 그 어느 분야보다도 크게 공헌할 수 있게 될 것이다.